

# 익산시 메타버스 산업 선도도시 부상

###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 21개 기업과 MOU...14곳 이전 콘텐츠 제작·비즈매칭·기술 지원 실감콘텐츠 통해 지역발전 모색



익산시는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를 구축하고 기업들에게 콘텐츠 제작, 비즈매칭, 기술을 지원한다. 홀로그램으로 표현한 공룡. <익산시 제공>

익산시가 실감콘텐츠 사업 견인을 통한 지역발전 전을 모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익산시는 지난 2019년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시작으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실감콘텐츠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시가 구축한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는 국비 149억원이 투입돼 홀로그램 기업들에게 콘텐츠 제작, 비즈매칭, 기술지원을 전개한다. 시는 총 21개 홀로그램 기업과 MOU를 체결했으며 그 중 14개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했다. 올해는 도내 홀로그램 기업에게 리빙랩 서비스를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해 지역 대표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다.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는 국비 48억

원을 확보해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허물고 있는 실감콘텐츠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생태계를 마련하고 경쟁력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구축했다. 지원센터는 전국 XR 산업 관련 기업체의 제품 성능평가 컨설팅, 관련 시장동향, 기술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홀로그램 산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홀로그램 핵심기술 개발사업부터 시제품 사업화를 진행하는 실증사업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20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274억원으로 5가지 공모과제(HOE스크린, 플렌옵틱, 상용차용HUD, 저작도구 개발 등)를 수행하며 홀로그램 실증 및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홀로그램, 확장현실, 실감형 콘텐츠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다져온 기술력으로 메타버스로 도약을 준비한다. 시는 K-뉴딜2.0 기반 메타버스 생태계 선제적 지원 과제의 일환으로 전북도와 추진전략을 마련했으며 3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활경제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공모사업에 도전한다는 구상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구축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 분야 지원을 통해 의료, 교육, 교통, 문화, 안전 등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홀로그램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산업 선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동절기 휴장 군산 새만금 어린이랜드 개장

동절기 휴장했던 '새만금 어린이랜드' <사진>가 개장, 11월까지 운영한다.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방조제 유휴부지를 활용해 만든 어린이랜드는 2018년 개장한 후 매년 동절기를 제외한 3~11월 운영되고 있다. 5만6000㎡의 넓은 공간에 조성된 어린이랜드는 새만금을 200분의 1로 축소해 만든 생태연못과 새만금 방조제를 형상화한 170m의 데크로드를 갖췄다. 어린이랜드에는 공중으로 도약해 노는 바운

싱돌, 무선조종 자동차를 이용하는 테마 놀이마당이 있다. 또 비행기·자동차 모형의 놀이대, 그물 놀이대, 어린이놀이터에서 맘껏 뛰어놀고 잔디광장과 쉼터에서 쉴 수도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겨우내 움츠렸던 아이들이 모험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린이랜드에서 활기찬 봄을 맞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 고창군, 동학혁명 성지화 사업 본격화...행안부 재정투자심사 통과

### 사업비 225억원...내년 착공

고창군의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 탄력을 받게 됐다. 고창군에 따르면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무장기포지'와 '전봉준장군 생가터'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지난 2019년 7월 연차별 국비지원계획 재검토와 경제력 타당성 조사 재추진 등의 사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은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군은 그간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재검토 사항 보완을 위해 국비 2억원과 국비 1억원을 투자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다. 지난해 12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승인을 이끌어내 총사업비 225억원을 확정했고, 중앙투자심사를 재상정했다. 고창군은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



전봉준 장군 생가터 전경. 역을 발주해 2023년 착공과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무장기포지의 사적승격을 위한 행정예고가 진행 중이고, 전봉준 생가터 역시 전북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당초 목표했던 사업규모가 달성되고 중앙투자심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만큼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고창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기념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정읍시, 농촌마을 60곳에 소화전 설치

### 올 사업비 3억원 투입

정읍시가 소방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마을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지역 소화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사진> 이번 소화전 설치사업은 소화전이 미설치돼 소방용수 부족에 따른 화재진압의 취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60개의 농촌 마을에 순차적으로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중점적으로 설치해 화재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또 기존 소화전의 고장 또는 파손된 소화전에 대해서도 즉각 보수·교체해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화전 확대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1억2300만원으로 소화전 보급이 필요한 33개소에 설치 완료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순창군,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생 18일까지 모집

순창군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인원은 2명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모집대상은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관광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로 문화관광해설이 가능한

외국어 능통자에 대해서는 우대선발 한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되면 총 100시간에 걸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3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 기간과 실무수습 기간에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문화관광해설사로 최종 선발되어 활

동할 경우 1일 6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학력이나 어학능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순창군청 문화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순창을 찾는 외부 관광객에게 순창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문화나 관광 등에 기본 소양과 관광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능력 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남원시, 이용객 감소 고속버스터미널 폐쇄

### 시외버스터미널과 통합 운영

다음 달 1일부터 남원고속버스터미널이 폐쇄되고 시외버스터미널과 통합 운영된다. 고속버스터미널 폐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감소세가 이어지며 경영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그동안 남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2개 버스 회

사가 서울, 인천 등 2개 노선에 하루 왕복 20여 차례 버스를 운행해왔으나 코로나19로 승객이 줄며 1개 노선, 9회로 대폭 감축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당분간 노선과 운행횟수의 추가 감축 없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영업할 것으로 안다"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매표 시스템을 차질 없이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